

원광대학교병원 금연지원센터, '금연 엔젤상' 시상

입원 환자들 대상 금연 의뢰 협조·금연지원서비스 흥보 등 활발한 우수 병동 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에서는 지난 5일 병원 내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의뢰 협조 및 금연지원서비스 흥보 등이 활발한 우수 병동(또는 개인)들을 선정해 '금연 엔젤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민간보조사업으로 금연 사업 제1기(2015~2017년)에 이어 제2기(2018~2020년)를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원광대학교병원 내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건강 상담, 흡연 검사 등이 제공되는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금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원 환자들에게 금연 상담간호사가 병동으로 직접 방문, 맞춤형 일대일 금연 상담이 제공되면서 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을 돋고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금연 엔젤상은 입원 환자 금연 상담외에 건수, 병동 내 금연 분위기 환경조성 노력, 센터 금연 사업 협조 수준정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병동을 선정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기념 사진 활용과 소정의 기념품이 전달됐다.

91병동 김민자 수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병동 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친 결과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원광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일 병원 내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의뢰 협조 및 금연지원서비스 흥보 등이 활발한 우수 병동(또는 개인)들을 선정해 '금연 엔젤상'을 시상했다.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병동을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전북금연지원센터(883-9030)는 금연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지

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성공이 어려운 종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월 1회 4박 5일 학습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중에 있다. /의산=우병희 기자



장수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성황리 마쳐

장수군은 지난 5일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양촌에서 민원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관리방법 배우기, 일상생활 적응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행정 일선 민원업무 직원들의 활력을 충전하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고객감동·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고충민원 증가와 인사이동 등 업무 변화로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과 폭언·폭행 등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 및 친절교육을 함께 진행하였고 특히, 각종 민원처리로 피로가 누적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후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장 내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그동안 억눌린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할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캠페인 펼쳐

진안군은 지난 5일 어린이 등교시간에 맞춰 진안초등학교에서 가을 개학 맞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계공무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달 관리원,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이 참여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식품 중 고열량 고카페인식품 안 먹기, 달고 짜지 않게 먹기 등 흥보 물품과 리후렛 등을 배부하면서 흥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고열량 고 카페인식품 판매여부와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식품 보존과 유통기준 및 냉장·냉동 시설 운도 기준 준수여부 등을지도 점검했다.

위생계 박현숙 팀장은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금지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서, 학생 수송 버스기사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6일 무주읍에 위치한 반딧불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기관을 방문해 원장,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타 관내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교통사고 예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차량 관계자의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통학버스 운전기사들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차량 안에 남아있는지 여부를 출발 전, 도착 후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경찰청에서 배부한 스티커를 직접 차내내부에 부착을 하여 관계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서 청문실, 인권보호 의식 함양 힘써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경찰청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보호 활동에 종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권감수성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 토론회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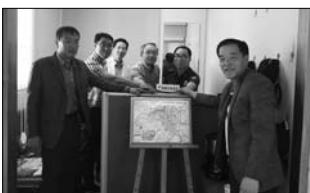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의 현대적 가치에 따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김성재 서장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된 만큼 고창경찰은 인권경찰 의식을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순창경찰서, 고객만족 인권위원회 합동 인권진단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에서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5일, 이틀에 걸쳐 경찰서 인권위원회(위원장 정문재)와 경찰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전반에 대한 인권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창경찰서는 지난달 전북에서 최초로 인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이번 합동 인권진단을 통해 민원 실 및 수사부서, 진술녹화실, 과출소를 돌아보며 피의자 체포, 조사 등 범죄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인과 경찰서 신축 예정에 따른 직원 인권관련 목록 등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언, 경찰관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요인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피는 기회를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1회용품 줄이기 솔선수범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김제시 환경 조성을 위해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인용 텀블러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은 환경은 후세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무심코 사용한 종이컵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이런 작은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진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트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